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4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남아프리카공화국

I. 일반개황

면적	1,221천 km ²	G D P	2,609억 달러(2007년)
인구	47.60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5,482 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Rand(R)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환율(달러당)	7.05(2007년)

- 남아공은 4천8백만 명의 인구와 한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금융, 비즈니스, 물류, 관광, 광업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9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수도인 Pretoria, 경제중심지인 Johannesburg, 관광 중심지이자 입법수도인 Capetown, 물류 항만 중심지인 Durban 등이 주요 도시임.
- 남아공 경제는 아프리카 전체 GDP의 27%, 수출입의 22%, 제조업 생산의 40%, 광물생산의 45%,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부존 광물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선진국 수준의 잘 발달된 경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치안 불안, AIDS 확산, 강력한 노동조합 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
- 1994년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을 철폐하고 흑백 통합정부를 구성한 이후, 집권 ANC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넬슨만델라와 현 음베키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리더십을 통해 안정적인 정국운용을 보여주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3.1	4.9	5.0	5.4	5.1
재정수지 / GDP	-2.1	-2.5	-0.6	0.6	0.8
소비자물가상승률	5.9	1.4	3.4	4.6	6.5

자료 : IFS, EIU

□ 견조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07년 남아공의 실질GDP성장률은 5.1%에 달함. 이는 남아공 GDP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 및 인프라 구축 투자에 따른 건설부문의 호조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지난 200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의 파업이 수습되고 자동차 부품분야의 생산이 재개되면서 제조업 분야 정상화 또한 남아공 경제성장에 기여함.
- 그러나 2007년 초부터 지속된 심각한 전력난으로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은 밝지 않은 실정임. 남아공 수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광산업에 제공되는 전력 제한으로 2008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3%에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생산량 감축에 따른 광업인력 구조조정은 남아공노동총연맹(COSATU)을 비롯한 남아공 노동조합의 쟁의 활동을 촉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전력설비가 확충되는 2012년까지 지속될 전력부족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수위축으로 인해 향후 남아공

실질경제성장률이 2008년 4.0%, 2009년 4.2%, 2010년 4.6%로 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 물가상승 압력 가중

- 2008년 1월의 월별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함. 특히 세계 곡물가격 상승과 자국 내 농업생산 감소로 식품가격이 평균 13.4% 상승함. 국제 유가 상승과 랜드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남아공 물가상승률은 2007년 한 해 물가상승억제선인 6%를 상회하고 있음. 2008년 4월 달에는 전기세 14% 인상돼 물가상승 억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 경제성장보다는 빈곤퇴치를 우선시하는 정책기조에 의해 남아공 통화위원회는 다시 한 번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곡물과 원유의 국제거래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 2009년까지 6% 밑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 재정수지 흑자 기조 유지

- 2006년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이래로 2007년에도 재정수지는 GDP규모 대비 0.8%를 기록함. 전력난 및 미국 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인세를 29%에서 28%로 1% 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2008년 4월 1일자로 단행, 재정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력시설 확충 및 2010년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한 치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다변화된 경제구조 보유

-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수산업 위주의 1차 산업 또는 석유, 광물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남아공은 제조업, 금융, 광물자원 개발, 건설,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보유하여 다변화된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2006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은 금융서비스 21.6%, 제조업 18.0%, 유통 14.4%, 광업 6.4%, 건설업 3.3%, 농림수산업 2.4%, 전력 2.4%, 기타서비스업 29.8%로 다양한 산업기반을 보여주고 있음.

□ 향후 수년간 지속될 전력난

- 남아공 전력회사 Eskom은 아프리카 내 최대의 전력회사로 남아공 뿐 아니라 전체 아프리카 대륙 전력의 60%를 공급하고 있음. 특히 남아프리카 지역 내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및 짐바브웨는 자국의 전력을 남아공의 Eskom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음.
- 전기공급 지역의 확대와 경제개발로 인한 산업전력수요가 급증했지만 Eskom 민영화 정책 혼선으로 전력시설 추가 증설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지지 못해 세계 기준 15%에 훨씬 못 미치는 8%의 초과전력생산능력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광업을 비롯한 산업 시설에 90%의 전력만이 공급되고 있으며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정전을 시행 중임. 2012년까지 8,000 메가와트 규모의 증설 계획을 세우고 발전소 건립에 착수했지만 완공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전력난에 시달려 산업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심각한 빈부격차

- 남아공은 세계 최고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지닌 나라 중 하나임. 교육기회 부재로 미숙련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흑인인구의 3분의 2가량이 한 달에 250불미만의 저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백인인구를 중심으로 부의 분배가 이루어져 남아공 총 소득의 3분의 2가 상위 20%계층에 집중됨.
- 아파트헤이트 이후 흑인정권의 지속적인 통합정책으로 인해 인종 간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 1960년 기준 백인과 흑인의 총 가처분 소득 보유 비율이 각각 69.4%, 23.2%에서 2007년 40.4%, 46.5%로 개선되었음. 하지만 같은 인종 그룹 내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높은 실업률과 함께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남아공

-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27%, 수출입의 22%, 제조업 생산의 40%, 광물생산의 45%,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

- 남아공은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광물이 전체 수출액의 약 30% 내외를 점유하고 있음. 주요 보유자원으로는 백금(전 세계 매장량의 87.7%), 금(40.1%), 망간(80%)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석탄,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철광석, 망간, 우라늄 등 다양한 광종을 보유하고 있음.
- * 단, 석유, 천연가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잘 발달된 인프라

-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잘 발달된 도로, 항만, 항공 인프라를 보유, 아프리카 주변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주변 아시아국의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수십 년간 지속된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흑인 거주 지역으로의 도로 연결 상황은 열악한 상황임. 지난 몇 년간 저조한 인프라 투자로 인한 도로상황 악화 및 항만 화물 적체로 인해 국제기준에 비해 크게 운송비가 상승하였으나, 2005년, 약 590억불 규모의 도로, 통신, 항만 부문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 향후 개선이 기대됨.
- 통신부문에 있어서는 국영통신기업인 Telkom을 기반으로 타 아프리카국가에 비해 잘 발달된 통신 유선선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 동아프리카 해저 통신케이블의 완공으로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남아공은 Vodacom을 비롯한 다수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기준 전 인구의 65.4%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아프리카 내 가장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음.

□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금융 허브 역할 수행

- 남아공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출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남아공의 금융산업은 남아공 총 GDP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최근 금융기관의 재무제표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해 금융기관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화거래 또한 상당부분 자유화하였음.
-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남아공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바클레이스를 비롯한 해외 메이저 금융기관들은 남아공 금융회사 지분취득

을 통해 타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부문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성장주도형 개방경제정책 추진

- 남아공 정부는 외국계 기업 CEO로 구성된 투자자문단을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폐지, 투자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등 성장 주도형 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994년 이후 건설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단, 고질적인 치안불안 및 AIDS 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강성 노동조합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흑인경제 육성을 위한 BEE (Black Economy Empowerment) 정책은 그 복잡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증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BEE는 취약계층 경제기반 확보를 위해, 흑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특정 산업의 경우 흑인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1,902	-7,003	-9,723	-16,488	-19,817
경 상 수 지 / G D P	-1.1	-3.2	-4.0	-6.5	-7.6
상 품 수 지	3,431	-282	-1,204	-6,175	-7,250
수 출	38,700	48,237	55,280	63,767	75,436
수 입	35,270	48,518	56,484	69,942	82,686
외 환 보 유 액	6,164	12,794	18,260	23,057	29,589
총 외 채 잔 액	27,423	27,112	31,099	35,549	39,224
총 외 채 잔 액 / GDP	16.4	12.5	12.9	13.9	15.0
D . S . R .	5.8	4.0	4.6	6.7	6.6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주요 수출품목인 금, 백금의 국제거래가격 상승과 함께 약 랜드화로 인한 광업생산용 기계 등 상품 수출의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감축로 인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 반면 수입부문에서는 고유가와 랜드화 약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품 수입액의 증가폭이 상품 수출액의 증가폭을 훨씬 상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2006년 6.46%에서 2007년 7.59%로 확대됨.
- 서비스 및 자본수지 부문에서도 관광수지 흑자규모가 증가하고 남아공 기업의 본국 송금이 증가추세이나 해외투자자 대상 송금액의 증가로 인해 적자를 기록함.

□ 외환보유고 증가세

- FDI 유입 증가 및 상품수출 증가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231억불을 기록한 데 이어, 2007년에도 전년대비 28% 증가한 296억불을 기록함.

□ 외채 건전성 제고

- 세계적 신용평가 기관의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아공 정부는 2007년 5월 12억불 규모의 15년 만기의 달러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 매년 4,700만 불 규모의 원금이자상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집권 ANC(Africa National Congress),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 정국 주도

- 1994년 역사상 최초인 전 인종 참여 민주선거를 통해 ANC를 중심으로 한 흑백 연합정권(만델라)수립에 이어, 1999년 집권여당 ANC의 총수 타보 음베키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남아공의 제 2기 민주정부가 출범하였음.
- 음베키 정부는 국회 내 절대다수인 여당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고용창출, 빈곤타파, 치안 확보 등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실시된 선거에서도 집권여당인 ANC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총 투표자의 70%) 현 음베키 대통령이 재선되었음.

□ Jacob Zuma의 ANC 의장 선출과 향후 불안한 정국 전망

-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ANC 전당대회에서 Jacob Zuma 전 부통령이 임기 5년의 새 의장으로 선출됨.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남아공에서는 국회 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ANC의 의장이 대통령에 선출되게 돼 Jacob Zuma는 2009년 4월 현 음베키 대통령의 퇴진 후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음.
- Zuma의 당선에는 ANC내 주요 정치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좌파 성향의 남아공노총(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 COSATU) 및 남아공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 SACP)의 전폭적 지지가 큰 역할을 함. 이들은 그간 음베키 대통령

이 시장, 기업,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한 흑인계층 복지 향상 및 토지개혁에 미진했다고 비판, 향후 Zuma의 집권 후 현 음베키 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에 일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

- 단, Zuma 의장은 남아공 정부의 무기도입 사업과 관련 직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패 혐의로 2005년 이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ANC의 의장 사퇴가 예상된다. 또한 지난 12월 의장선거를 계기로 ANC의 삼자동맹(Tripartite Alliance) 분파 중 개혁 중도노선의 ANC와 좌파 SACP, COSATU간 분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정국의 분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임기 말 음베키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조기 퇴진 요구 증폭

- Jacob Zuma 전 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음베키 대통령이 전력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조기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 또한 Zuma가 ANC 의장으로 선출된 후 ANC 내 주요 요직뿐 아니라 정부 주요 각료 또한 Zuma의 측근으로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음베키 대통령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져 현 정부의 정국운영이 불안정한 상태임.

□ 지지부진한 치안개선

- 세계 2위의 살인범죄율을 기록 중인 남아공의 심각한 치안 문제로 인해 기존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사무지역이 교외의 Sandton으로 옮겨가고 있는 등 치안문제가 남아공 경제발전의 방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범죄의 근본원인인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불평등 해결에는 지지부진한 채 경찰력을 강화하는 음베키 정부의 치안강화 정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또한 1990년 이후 짐바브웨를 비롯한 인근 국가의 경제 붕괴로 말미암아 남아공 도심으로 급격히 유입된 주변국 사람들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 높은 AIDS 발병률

- AIDS는 평균수명 및 남아공 인구 증가에 악영향을 끼쳐 남아공 평균수명이 50세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증가율도 1%미만으로 정체됨. 또한 사망 또는 장기요양으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숙련된 기술직 노동인구가 부족, 남아공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2. 국제관계

□ 국제사회 위상 강화

- 음베키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 세네갈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아프리카 경제, 사회 재건을 목표로 하는 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핵심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남아공 정부는 SACU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 SADC(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등을 활용한 남부아프리카 14개국 자유무역지대화 및 경제블록화를 유도,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의 이익을 대표하여 그들의 지지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낮은 외채상환 부담

- 1986, 1987, 1990년 리스케줄링 이후 리스케줄링이나 채무불이행 사례가 없었음.
- 2007년 말 총 외채잔액은 392억 달러(GDP의 15.03%), D.S.R은 6.58%이며 지속적인 외환보유액 증가로 외채상환 부담은 낮은 수준임.

2. 국제시장 평가

□ Moody's, S&P와 Fitch는 동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Baa1, BBB+, BBB+로 평가하고 있음.

□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OECD : 3등급('07.4) → 3등급('08.4)
- Euromoney : 55/185('07.3) → 55/185('07.9)
- ICRG : 71/140('07.5) → 60/140('08.2)
- I.I. : 51/173('07.3) → 49/174('07.9)

□ 주요 ECA 지원태도

- US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12. 1 (북한과는 1998. 8. 10 수교)

- 주요협정: 항공협정(95), 이중과세방지협정(95), 투자보장협정(95)

- 대 아프리카 최대교역국
 - 2007년 우리나라의 남아공 대상 수출 및 수입은 각각 1,753백만 불, 1,767백만 불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재 남아공은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제 1위 수출대상국임.

 - 주요 수출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기기, 자동차, 기계류 및 전자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백금을 비롯한 광물자원임.

- 해외직접투자(2007년 12월 말 현재, 총 투자기준): 115건 148,353천 불

V. 종합 의견

- 남아공은 금융부문의 성장, 해외투자 유입 증대, 주요 광물자원의 국제거래가격 상승, 관광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심각한 전력부족 문제는 2008년 이후 남아공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집권 ANC는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보여주고 있음. 단, 최근의 전력난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여론과 정적인 Jacob Zuma의 ANC의장 당선을 계기로 음베키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일부 정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각 산업부문의 고른 발전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D.S.R.도 6%대로 안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이 낮은 편임. 또한 건설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단기외채를 장기외채로 전환, 외채구조 건설화 작업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201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고질적인 치안불안 및 높은 AIDS 발병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